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논산청년꿈키움광장 운영 본격화

☞ 정은모기자 | Ⓞ 승인 2026.01.19 10:12

청년 주도 프로그램 운영·생활지원 사업 병행



논산미래광장전경.

충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이 논산청년꿈키움광장을 청년 일상 속 쉼과 배움, 도전을 잇는 생활권 중심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논산청년꿈키움광장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복합 청년문화공간이다. 청년이 부담 없이 찾아 머물며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소통·상담 기능을 한곳에 담아 운영한다.

재단은 청년 수요를 반영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청년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1일체험 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연합 페스티벌, 청년아카데미, 청년단체 성장 및 교류지원 사업 등 청년 주도형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

생활 분야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면접정장 및 생활공구 대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결혼축하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을 묶어 청년 삶 전반을 지원한다. 재단은 관련 사업에 28억 5천360만 원을 투입해 꿈키움광장을 중심 거점으로 참여 기반을 넓히고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꿈키움광장 소통공간.

공간은 소규모 모임부터 네트워킹 행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순 이용 시설을 넘어 청년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재단은 지역 기관과 민간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청년정책 안내와 연계를 병행해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논산청년꿈키움광장은 커뮤니티룸, 세미나룸, 공유오피스 등을 갖췄다. 논산시 청년(18~45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문을 닫는다.

프로그램 신청과 공간 이용 문의는 논산청년꿈키움광장(041-730-6061)으로 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모기자